

이사담

이기범 (49)

충남 공주시 사무소장

화농성질환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작두콩이 국내최초로 시험재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작두콩 재배의 주인공은 충남 공주시 반죽동 이기범씨(49·한국생약협회 공주시 사무소장).

긴 칼 모양의 콩깍지가 열린다고 해서 이름도 작두콩이라 불리는 이 콩은 콩카나파린이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특수한 해독작용으로 고름 제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농증이나 치질 등 화농성질환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최근 일본 연구결과 밝혀져 일본내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는 작물이다.

우연한 기회에 작두콩의 효능을 접한 이 소장은 3년전 일본에서 콩 두 알을 들여와 시험재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고온재배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번번히 실패해 오다 어느정도 자신감을 얻은 지난봄 드디어 5~6백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투자 1천2백여평에 작두콩을 파종했다.

콩 종류 중에서도 잎사귀가 큰 냉쿨식물로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인 작두콩은 따뜻한 지방에서 재배가 적합하다. 4월중순 부터 5월 상순에 파종 여름에 담홍색 또는 백색의 커다란 나비같은 모양을 한 꽃이 핀다.

꽃이 핀 후 길이가 25~30cm 폭 5cm 정도의, 어떤것은 더 긴 칼 모양의 콩깍지가 매달린다. 이 콩깍지 속에는 암홍색 또는 흰색이 섞인 붉은



◇ 화농성질환에 효과가 높은 작두콩이 국내 최초로 시험재배에 성공했다.

긴 타원형의 콩이 일렬로 10~14알쯤 들어 있다.

7콩 자체는 비교적 크고 길이 3cm 정도의 콩도 있어 한주에 보통 1kg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세는 대략 kg당 1만원 선에 거래될 것[이라는 이 소장의 설명.

첫서리가 내린 10월20일경 쫄 수확할 예정이며 수확기를 2달여 앞둔 지금으로선 작황이 좋아 3천만원의 소득을 내다보고 있다.

에 타서 컵 한잔씩 마셔도 좋다. 하루 양은 4~15g (콩 3~10알) 정도가 적당.

치질이나 탈항으로 고생할 경우 컵 두잔의 끓인 즙을 세면기 등에 넣어 가제나 탈지면 등에 적셔 환부에 대어 따뜻하게 하면서 그 끓인물로 잘 닦아주면 효과적이다. 탈항시 빠른 경우 1~2회 좌욕으로도 차도를 보이는 예도 있으며 치질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끓인즙을 목

작두콩 재배 성공...국내최초

축농증등 화농성질환에 특효

이기범 소장이 소개하는 작두콩 복용법은 이렇다.

잘 건조된 작두콩을 20~30g 을 (콩으로는 10알~15알) 한되(1l) 이상의 물에 넣고 끓여서(1시간 정도) 3컵 정도 되면 불에서 내려 하루 한번 한컵(200ml)정도 마시면 된다.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마실때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또한 작두콩을 볶아서 마시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볶아서 분말해 조금씩 뜨거운 물

욕탕 속에 넣어 입욕하여 몸을 따뜻이 하면서 환부를 문지르면 보다 효과적이다.

일본에서는 작두콩이 약국에서 상용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치질 축농증 치료제로 대중화돼 있는 상태이며 국내에도 널리 보급된다면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소장은 올 시험재배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작두콩 종자를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도로 하고 파종후 파종상은 3~5cm 두께로 짚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과실에서 종자를 추출한 후 물에 깨끗이 세척합니다. 그 후 종자를 모래와 잘 혼합하여 화분이나 나무상자에 넣어 20℃정도 온도에서 약 3개월가량 저장하며 이때 7~10일 간격으로 물을 줍니다.

다시 종자를 3℃정도되는 저온조건

작약을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작약 뿌리를 건조할때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적색반점이 생겨 상품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약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건조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경북 의성 작약 재배 농민)

작약은 건조기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면 페놀물질이 흘러나와 변색이 되어 불량품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작약의 건조 방법은 수확한 뿌리를 열풍건조하기 이전에 연탄을 이용하여 40~60℃에서 1일정도 1차 건조한 후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40℃에서 54~36시간 건조하면 뿌리의 갈변이 거의 없으며 상품 가치가 향상됩니다.

<작물시험장 약용작물개발연구실>

가시오갈피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민입니다. 가시오갈피 종자번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번식을 실패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 인제 약초재배 농민)

국내 가시오갈피는 지리산, 오대산 등 산지의 고지대에 자생하고 있으며 최근 약효의 우수성으

작약 연탄이용 1차 건조 필요

로 재배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대부분 오갈피류 식물의 종자는 발아시키기가 어려우며 특히 가시오갈피의 경우 종자 자체의 생리적 장애로 인하여 당년 발아가 어렵습니다.

가시오갈피의 종자발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9~10월경에 과실을 수확한 후 1~2일동안 물에 담귀 두었다가

에서 저장하여 채종 다음에 4월 중순경 파종하면 5월경 발아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자연 조건에서 파종하면 채종후 겨울을 두번 지난후 발아되며 발아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파종방법은 폭 1m에 길이 5~10m 정도의 육묘상을 준비한 후 점파를 하는데 시른 거리는 8×8cm, 2~3립 파종하며 파종후 복토깊이는 2cm정

맥문동은 청양군내에서 매년 1천근 가까이 수확되던 것에 비해 올해는 7백근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시세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자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때문. 또 연작피해와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도 한 원인.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맥문동 근당 도매시세는 거심 중풍으로 7천2백원선. 맥맥은 상품이 6천원, 그보다 못한 것이 5천5백원선에 최하품은 2천~3천원 선에 거래되기도 한다.

상품은 근당 3천원 선에 하품은 근당 2천원 선으로 아직은 보합세.

수입산 건강의 대량반입으로 6~7천원선이던 국산 건강값이 3천원대로 폭락한 반면 kg당 1천5백원 선이던 생강값이 울들어 5천5백원선까지 경중 뛰었다. 생강값이 이렇듯 폭등한 원인은 수입생강여파로 울생강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뿌리썩은병 발생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다. 근당 3천원 선이 고작인 건강에 비해 kg당

산지동향

5천5백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생강으로 출하가 물리고 있어 한약재 건강은 극소량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

수입건강의 유통량에 따라 국산의 시세도 변동되겠지만 생강값이 이대로 상승세를 탄다면 건강시세 변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텍사시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근당 3천3백원 선이던 텍사가 8월 초 4천6백원 선으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 8월말 현재 5천3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3~4년 동안 시세하락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함으로써 재배면적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탓인 듯.

시세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8월초 3천5백원선이던 통 : 1 8월말 현재 4천원 선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활은 추대율이 높아 산에서 직접 자생하는 묘종을 캐다 재배하기 때문에 묘종값도 다른 것에 비해 비싼 편.

강원도 평창이 주산지인 강활은 일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다 지난해 시세 형성이 형편없어 울 재배면적은 예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수확량도 예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산지에서 조차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 충북 제천 강원 영월 등지에 약 10여만근(60톤)에 달하는 재고량이 1년으로 추측되고 있어, 울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고는 하나 국내 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

맥문동 연작피해·건강 보합세

텍사·강활시세 상승...재배면적 감소 탓